

## 教授 三代論과 成熟期の 課題

李 敦 熙

(서울大 教育學科 副教授)

## I

大學은 學問共同體라고 일컬어지는 社會이다. 이 共同體에 부여된 課業은 眞理를 探究하는 것이며, 이 共同體에 주어진 特權은 學問의 自由이다. 이러한 課業과 特權은 서로 엇물림을 특징으로 하며 大學社會의 文化的 特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그 課業과 特權을 수행하고 행사하는 방식에 따르는 大學은 그 개성을 나타내며 또한 그 개성으로써 일반 사회와 인류 세계에 봉사한다.

이 大學社會에는 教授와 學生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계하지만, 學問共同體로서의 大學의 과업과 특권을 수행하고 행사하는 주역은 누구도 아닌 教授이다. 大學의 機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教授集團의 機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大學이 발전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의 여건과 여러 다른 關係集團의 특성을 제외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教授集團의 資質이 향상되고 能力이 신장되고 業績이 축적되어 간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想定하는 것이다.

大韓民國의 건국 후 지금까지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팽창한 韓國 大學社會에서 教授集團이 學問共同體의 주역으로서 이루어 놓은

업적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업적은 완성한 研究物이나 길러낸 弟子의 양적·질적 수준으로서가 아니라, 學問共同體가 그 課業과 特權을 수행하고 행사하는 內質과 그 傳統을 뜻한다. 그러나 그 업적은 현재 이루어져 있는 大學社會의 文化的 風土와 教授集團이 여태껏 쌓아 온 研究로 인하여 발전해 온 學問의 發達水準으로 평가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大學이 共同體로서 그 課業을 수행하고 그 特權을 누리면서 성장하는 과정에는 시기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課題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定礎期の 과제는 분명히 成長期の 과제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각 단계에서 주역을 맡았던 成員들이 오늘의 大學社會를 구성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學問共同體의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시키며 그 전통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韓國의 大學社會가 발전해 온 시기적 구분은 엄격히 단절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思考의 편의를 위하여 세 時期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大學社會 그 자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던 定礎期,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팽창한 發展期, 자율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안정시킨 成熟期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이를 연대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비록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異見의 도전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6.25 동란 후에 비교적 정착된 大學體制 속에서 教育받은 사람들이 教授集團의 成員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던 1960년대의 후반을 전후하여 定礎期와 發展期를 구분하고, 이들에 의해 教育받은 世代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1980년 무렵을 대체적으로 기점을 삼아 發展期와 成熟期를 구분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 大學社會에 공존하는 定礎期の 元老教授, 發展期の 中堅教授, 成熟期の 新進教授 각각이 감당해 온 과제가 무엇이었으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여기서 필자의 拙見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어느 조직체의 경우에서든지 간에 草創期の 주된 과제는 制度的·機構的 형태와 체제를 성립시키고,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일 등의 準備作業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그 조직체를 발전시킬 어떤 형태의 理念的方向을 모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建國과 더불어 韓國의 大學教育이 출발하던 당시에 전혀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 상태로 大學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우리 社會는 成均館과 같은 東洋式 高等教育機關보다는 이미 日帝에 의해서 세워진 西洋式의 近代의 大學을 母體로 하여 美國 大學의 특징을 보완하였던 셈이다. 그러므로 草創期の 大學이 어떤 傳統을 가진 大學制度를 채택하여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크게 진통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당시에 있었던 문제로, 國立大學案을 둘러싸고 생긴 大學街의 혼란은 制度的 문제라기보다는 政治的 문제로 발생한 것이었다.

당시의 教授들은 대체적으로 말해서 中産階의 家庭 출신으로서 日帝時代의 高等教育機關에서 教育을 받은 사람들이다. 教育의 背景만을 가지고 본다면, 후의 發展期나 成熟期에 教授가 된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教育과 訓練의 기간이 짧고 日本의 大學社會가 가진 學問的·文化的

특징으로 一元化된 풍토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다. 또한 당시의 韓國社會는 農耕社會의 특징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近代的·現代의 社會體制에서 볼 수 있는 產學連繫性이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教授社會와 大學은 강한 아카데미즘의 象牙塔 속의 생활을 즐기곤 한 편이었다. 大學은 「學問의 殿堂」이며, 大學人은 國家의 엘리트 集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教授는 비교적 정제된 풍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경쟁적 挑戰을 심하게 받고 있지 않았던 편이다.

또한 定礎期の 教授들은 당시의 韓國社會가 가진 전반적 後進性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學問的 自負心과 傲慢은 별로 나타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後學들의 독자적 성장이나 海外修學을 통한 발전을 권장하고 환영하였으며, 後見人으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인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後輩와 弟子들의 성장을 두려워하거나 경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師弟關係는 學問的 결속보다는 人情的 결함으로서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學問的 對話나 批判의 분위기는 크게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定礎期の 教授들이 後學의 양성에 힘썼다는 것은, 韓國 大學社會의 發展段階에서 보면 매우 진전한 분위기였다고 여겨진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오늘의 中堅教授層이 형성되었고 또한 發展期の 主軸이 구축되었다.

發展期에 教授가 된 사람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 집단은 定礎期の 教授들의 지도하에서 일종의 徒弟式으로 성장한 教授들이고, 다른 한 집단은 外國에 유학하여 특히 歐美의 學問을 배워 와서 教授가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定礎期の 경우보다 教授가 되기까지의 訓練期間이 길었으며 美國을 비롯한 西洋學問의 도입이 활발한 시기에 성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1970年代의 급격한 産業化의 시기에 大學과 社會에 봉사하였다. 그들 중에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종래의 講義 노우트 중심의 지도 형태에서 크게 탈피하고 수준 높은 研究物들을 또한 생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양성한 弟子들의 挑戰을 거의 직접적으로 받으면

서도 産業化의 過程에서 확장되고 다양화되는 社會的 機能의 여러 부면에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폭이 매우 넓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 教授가 된 사람들은 비록 訓練받은 수준이나 學問的 資質에 있어서 탁월성을 보여 주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말해서 西洋의 學問을 도입하여 보급하는 데 주력을 바쳤을 뿐 실로 韓國社會의 學問的 課題들을 自律的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는 않았던 셈이다. 특히 歐美에 유학하여 그곳에서 學位를 받아 귀국하여 教授가 된 사람들은, 人間關係에 있어서는 國內의 스승을 모시면서도 學問的으로는 자신의 유학 시절에 지도해 준 스승의 學問的 경향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들의 영향력이 작용한 大學社會는 경우에 따라서는 對話가 불가능할 정도의 學理的 異質性이 混在하는 가운데 온갖 형태의 잡다한 學說들이 쏟아지는 곳이 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學問 領域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學問共同體의 統合性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定礎期の 教授와 發展期の 教授가 함께 大學社會를 성립시키고 이들에 의해서 성장된 第3世代的 教授들이 점차로 오늘의 教授集團에 入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은 成熟期の 大學社會를 주도할 新進教授들이다. 이들도 國內의 教授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과 國外에 유학하여 훈련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定礎期の 教授들이 점차로 은퇴하여 發展期の 教授集團이 大學社會에 中堅으로 역할하는 분위기 속에 合流하고 있다. 그들은 發展期の 教授들처럼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新進으로서 부여받는 權威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상당히는 西歐的 學問의 주도에 완전히 지배되는 상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3世代的 教授들은 韓國 大學社會의 發展過程에서 자기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열을 가리거나 功過를 논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第3의 世代가 전개할 成熟期の 大學社會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大學社會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疾病을

제거하고 發展을 위한 原理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III

우리의 大學社會가 가진 疾病을 서술하는 方式과 이에 따른 內容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으나, 필자가 우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閉鎖性, 獨善性, 停滯性, 他律性을 들 수가 있다. 이에 대립되는 開放性, 協同性, 敏活性, 自律性 등이 成熟期の 大學社會가 갖추어야 할 주요 德目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의 大學社會에서는 定礎期부터 형성된 閉鎖性이 發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教授가 어느 大學에서 人事나 教育課程에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그의 同門들으로써 教授陣을 구성하는 것이라든가, 本校의 出身이 아니면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채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라든가, 담당한 講座는 거의 영구히 독점되어 경직된 學風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형태의 閉鎖性이 오늘의 大學社會에 여전히 남아 있다. 教授職의 제한성과 母校發展의 열망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겠지만, 學問共同體는 본질적으로 開放性을 當爲的 德目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閉鎖性은 후진적 상태에서의 탈피를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學理와 균형 있는 學問的 成熟과 비판적 풍토는 學問의 침체성을 막고 온갖 情報의 교환에 의한 자생적 발전의 길을 방해하고 만다. 批判에 開放할 수 있는 心性을 가지지 못하는 學者는 자신 속에 고질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誤謬에서 해방될 수가 없으며, 이러한 誤謬의 노출을 두려워 하는 것은 자신의 學問的 成長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學問共同體의 發展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 眞理는 열린 마음에 찾아 드는 법이다.

둘째, 獨善性은 역시 閉鎖的 心性이 가지는 부대적 특징이다. 오직 자신만이 眞理에 접근해서 살고 있으며, 오직 자신이 속한 集團만이 차원 높은 學問의 正道를 지키고 있다고 믿는 獨善主義는 學問的 論爭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울 學

問의 근거나 논리로써 방어하는 것보다 냉소나 오만으로써 비판을 敬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탁월한 理論이나 思想을 흡수하여 자신이 성장할 가능성을 배제해 버리기도 한다.

大學을 중심으로 하는 韓國의 知識人社會에는 이러한 獨善主義를 여러 分野에서 볼 수 있다. 獨善主義는 學問共同體의 對話를 불가능하게 하며, 그 權威는 政治的으로 유지될 뿐 探究의 결과에 의해서 보장받지는 못한다. 眞理란 반드시 누군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진리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 뿐이다. 眞理를 소유했다고 장담하는 사람의 태도도 學究的의 態度가 아닐 뿐 아니라, 거기에 權威主義가 편승하는 것을 방치하고 맹목적인 선망이나 추종을 일삼는 것도 學問共同體의 成熟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이 理論的 수준의 爭點으로서만이 아니라 일상적 生活의 道具로서도 작용한다면, 學者들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인의 思考와 價値觀을 誤導할 수가 있다.

세계, 우리의 大學社會에는 아직도 發展의 움직임을 뜻하는「自己體質」의 變化를 기하지 못하고, 道具的으로 無用하거나 불편하며 學理的으로 모순되며 불합리한 생각에 집착하여 있는 停滯性을 흔히 볼 수 있다. 그것은 創造的의 能力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閉鎖主義와 獨善主義가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 한 理論이나 學說이 批判에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妥當性에의 도전을 견디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眞理이거나 眞理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개방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外界의 理論이나 學說에 조명해 보는 것을 거부하면서 象牙塔에만 갇혀 變化를 기피한다면, 그것은 결코 成長할 수가 없으며 그 속에 잠적해 있는 誤謬로 인하여 어느 시기에나 自體崩壞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우리의 大學社會에서 볼 수 있는 停滯性은 점차로 새롭게 教育과 訓練을 받은 新進들의 의욕적인 노력에 의하여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傳統이나 慣習 그 자체에 매여 개혁을 요하는 사항들을 내버려 둔 것이 많다. 특히 최근에 와서 教育工學的의 理論과 機材가 발달되어 있고 電子産業이 생활 전반에 變化를 가져오고 있으며 組織體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教授集團이 주도하는 大學社會는 教育과 研究와 管理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모습을 사실상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大學社會의 保守的의 性向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그 保守性이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世界의 大學은 文明의 主軸으로서 人類社會에 봉사해 온 傳統을 가지고 있으며, 大學이 침체와 固着에 빠진 상태에서 人間社會의 發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우리의 大學社會가 가진 學問的의 他律性의 문제가 있다. 學問的의 自律性의 정도는 바로 그 大學社會의 成熟의 정도를 말한다. 學問的의 自律性은 傳統的인 것이든, 外來的인 것이든 그것을 계승하고 수용하는 일에 있어서나 비판하고 배척하는 일에 있어서나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반을 필요로 한다. 어떤 사람이 美國에 가서 이런 理論을 배우고 어떤 사람이 유럽에 가서 저런 理論을 배우게 된 것은 상당한 정도로 우연적인 일이다. 그러나 내가 이 理論과 思想의 배경을 가진 것을 하나의 필연적 사실인 양 여기며, 거기에서만 眞理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學問的의 他律性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치이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취향에 의하여 혹은 자신의 學問的의 背景 그 자체의 타당성 때문에 자신을 만들어 준 學派나 學緣을 고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眞理를 소유하고 있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學問的의 自律性은 반드시 새로운 創造를 가능하게 하는 能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思考나 主張을 스스로 검토하고 自力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能力을 뜻한다. \*